

길자연 한기총 회장, 오락가락 처치스테이 홍보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기독교 신앙 전하기 위한 것”

불교계 안팎의 예상대로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처치스테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7일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과 길 회장은 종교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대화를 풀어나갔다.

자승 스님은 길 회장에게 당성을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건넸고, 길자연 회장은 앞으로 많이 배우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부장 혜경 스님과 사서실장 경우 스님, 백도웅 종교인평화화사단 이사장이 배석했다.

길 회장은 대화 도중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하겠다”며 묻지도 않은 처치스테이에 관한 설명을 시작했다.

길자연 회장은 “템플스테이가 불교의 신앙과 정신을 대중에게 포교하고 알리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출마하면서 공약한 처치스테이가 템플스테이와 대립하는 양 비추지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라고 말했다. 길 회장은 “처치스테이 이름이라도 바꿀 용의가 있다. 처치스테이는 기독교 신앙을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자승 스님(사진 좌)과 길자연 회장은 자주 의견을 교환하며 화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강조했다. 길자연 회장은 템플스테이를 불교 포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순간 접견실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백 이사장은 옆자리의 길 회장에게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를 알리고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종교적 목적이 우선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이에 자승 스님은 “그렇다. 템플스테이는 불교를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

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150억원 예산을 지원해 640억원 이상의 관광 효과가 유발됐을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불교계는 기독교가 처치스테이를 하건 다른 종교가 무엇을 하건 간섭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와 처치스테이를 두고 살얼음 같던 양측의 대화는 최근 논란이 된 황우여 국회의원의 종교 편향 발언으로 더 긴장돼 갔다.

백도웅 이사장은 “황 의원 발언은 전달 과정에서 오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길

자연 회장도 “오늘 자승 스님을 만난다고 하니 황 의원이 본의가 아니었다며 오해라고 잘 말씀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내지르듯 말하는 경우가 많다. 왜 유독 개신교를 믿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난 불교가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행동과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종교지도자들이 잘 인도해야 한다”며 다소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20여 분간의 만남은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7대종단협의회 등을 통해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화합을 위해 노력하자는 원칙만을 되풀이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한편, 길자연 회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처치스테이에 대한 모순적인 발언을 내놨다.

길자연 회장은 “처치 스테이는 기독교포교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독교 신앙으로 불신자들의 안정을 위한 것이며 선교 목적은 아니다”라며 예방 때와는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특히, 길 회장은 평범기와 관련해 “이미 땅 밟기를 했던 당사자들이 사과를 했고, 불교계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며 “(땅 밟기를 한) 기독교인은 한기총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e2@dumnet

대불청, 제26대 집행부 출범

“호법신장 되겠다” 서원 다짐

대한불교청년회가 신입 회장 취임식을 갖고 종단을 의회하는 호법신장 서원을 다짐했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는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6대 정우식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병행했다.

정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년불자들이 삼보외호, 호법안승, 민족문화 수호의 호법신장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종교

편향과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민족문화 수호활동에서 청년불자들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불청은 이 취임식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에서 고불식을 갖고 △서원을 세워 기도정진하는 청년불자가 되겠습니다 △연행일치 지행합일의 삶을 살겠습니다 등 33개항의 ‘청년불자 서원’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개인자격으로 행사장을 찾았다가 주최 측 요청으로 행사가 시작되기 전 퇴장했다.

이어나 기자

“청년불자들 제 역할하도록 이끌 것”

정우식 대불청 제26대 회장

“26대 대한불교청년회는 불보살님의 행위를 닮은 청년회가 되겠다. 서원이 없는 청년 불자는 청년 불자가 할 수 없다. 저부터 다시 원력을 굳세게 세워 정진하겠다.”

1월 23일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우식 신임회장(사진)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불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며 “모든 청년 불자들이 서원을 세우고 스스로 담당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정 회장은 “안타깝게도 작금의 청년 불교의 현실은 위대한 선배들의 발자취를 부끄럽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청년불자들은 한국불교의 허리를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



사회 역할을 위해 청년 호법단과 전법위원회 발족, 중앙청년 호법단을 중심으로

로 지부별 호법단장, 지회별 호법팀장을 두고 전국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우식 회장은 또한 임기동안 청소년수련관 등의 공공시설을 수탁하고 만해백일장을 전국을 대표하는 행사로 만들 계획이며, 만해봉사단을 전국적으로 조직해 지역·사찰에 기여하는 대불청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정 회장은 “청년불자들이 한국불교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후원의 마음 지원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나 기자



불교식 명절차례 시연회

조계종 포교원 중앙신도회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이사장 김규범)은 1월 26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불교식 명절차례 시연회’를 실시했다. 시연회는 포교원(원장 혜총)에서 지난 1년 동안 연구하고, 발간 예정인 <불교 상제례 지침서>의 ‘불교식 가정제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불교식 가정제사 상차림은 육법공양물(향·초·꽃·차·과실·밥)과 국, 3색 나물과 과일, 육류와 생선은 제외하고 술 대신 차를 올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은정 기자

천태종 10·27법난대책위 출범

천태종이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월 24일 단양 구인사에서 ‘천태종 10·27법난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위원장에 총무부장 무원 스님, 부위원장에 안산·용문 스님을 임명했다.

‘천태종 10·27법난대책위원회’는 향후 법난피해 진실규명, 종단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10·27법난대책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실추된 종단의 명예회복은 물론 역사의 상흔이 치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장 무원 스님은 “법난으로 인해 당시 천태종단은 존립 자체를 위협 받았다. 지금이라도 꼭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당

시 고초를 겪은 스님들과 종단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태종이 밝힌 10·27법난 피해현황에 따르면 1980년 11월 10일 새벽 3시 당시 신군부 군인들이 단양 구인사 내 총무원 등을 군화발로 난입해 총정이었던 대총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석암·총무부장 운덕·교무부장 덕산·재무부장 기성·사회국장 국성·종정사서 대정 스님 등을 연행해 1개월 간 구금하고 고문·심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태종이 지난해 1월 23일 10·27법난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소청서에는 △피해자 개인차원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법난 극복 범회 정부요인 참석 △법난 극복 불망탑 조성 지원 △법난 극복 사회 복지관 건립 지원 등 천태종의 요구를 담았다. 노덕현 기자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 안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속여 보조금을 받아 행진 혐의로 기소된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몽 스님은 제주도 범하사 주지 시절인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으로 추진되던 ‘범하사 미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나무를 심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신문·한국불교종단협의회·한국불교기자협회 공동캠페인 올해는 불기 2555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법을 펴시고 입멸하신지 2555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서력기)는 기독교 성인의 탄생을 기준으로 년도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불자들이 아무생각 없이 불교행사와 서식에 서기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불기 2555년을 맞은 올해 온 불자가 불기를 사용해 불자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십시오.

- 사찰 내부 문서나 서적 포스터 홍보물 현수막에는 예) 2011포교전진대회 = 2555년 포교전진대회
- 사찰 밖에서나 해외에서는 예) 2555(2011) 불교행사 협조요청

2555(2011) korea buddhism week (한국불교주간) - 서기를 뺀기나 불기

※ 좌선, 기도하시는 스님들께서 직접 착용해보고 인정한 제품입니다.



관절염 예방, 무릎보호 기능성 기모 털내복

좌선·기도 전용 관절보호 털내의 SET

2겹 봉제의 강력한 관절보호 발열 털 기모 내의 세트

관절부분이 2중으로 제작되어 관절에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줍니다. 털원단 2겹 봉제로 원단과 원단사이 공기층이 형성되어 보온층이 뛰어납니다.

입은 듯 안입은 듯 가볍고 따뜻하게

섬유사이의 공기층이 단열효과를 발휘하여 외부 찬공기 유입을 막고 내부에서 발생한 열의 방출을 최소화 시켜드림어 우수한 원단의 탄력과 밀착성으로 겉옷 착용시 활동하기 편리합니다.

최고의 좌선 내의로 효율적

신축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밀착이 되어도 착용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탁월한 소재의 원단으로 강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에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무릎관절 부분 2겹 봉제

무릎관절 부분이 2겹으로 봉제되어 좌선시 가장 취약한 무릎관절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주고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추운 겨울 보다 효율적으로 신체보호 기능을 보여드리는 최고의 좌선 관절 보호 털내의 자신있게 선보여 드립니다.

- 색 상: 회색
- 구 분: 남성용, 여성용
- 사이즈: 상의 - XXL / 하의 - FREE, XXL
- 가 격: 상·하의 각 ₩20,000원

※ SET 구매 시 ₩38,000원

구입 및 제품문의

02)2264-7947 / 011-9947-7947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7502-04-027453 예금주:김은정

스님, 현장근무, 군인, 시장상인, 경비, 낚시, 부모님 효도선물, 등산, 골프 야외활동에 좋음! 기립납품 및 단체주문 환영!!



2중 재봉된 무릎부분

모든 부분 안감 울털